



정치적 무지에 대한 무지

실제 지식과 인지된 지식이 정치 참여에 미치는 효과 분석

김현우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석사

이종혁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Ignoring Political Ignorance

Effects of Actual Political Knowledge and Perceived Political Knowledge on Political Participation*

Hyeonwoo Kim**

Master, Department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Kyung Hee University

Jong Hyuk Lee***

Professor, Department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Kyung Hee University

It is a common phenomenon that people with low political knowledge overestimate their knowledge level and actively participate in politics. This study tried to tackle this problem based on the meta-cognitive ability and the Dunning-Kruger effect. According to Kruger and Dunning, individuals who lack abilities in a particular area tend to overestimate their abilities, whereas individuals who have high abilities underestimate their actual abilities. The overestimation is due to the lack of meta-cognitive skills, which means that they do not have enough ability to understand what they know and what they do not know. On the other hand, the underestimation occurs because they do not make an objective judgment on the ability of others. This study verified whether this distorted perception occurs in the area of political communication and explored what effect this phenomenon has on political participa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an online survey with the help of a research firm. A quota sampling method was employed so that the respondents' gender and age distributions were similar to those of the national population. In the survey, many items measuring actual political knowledge, perceived political knowledge, political participation, news use, and political discussion were included. Finally, 561 respondents' answers were analyzed. Results showed that the group with low political knowledge rated their knowledge level higher than the actual level,

* This manuscript was revised based on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본 연구는 제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수정 작성했습니다.)

** hwkim93@naver.com

*** jonghhhh@khu.ac.kr, corresponding author

while the group with high political knowledge level rated their knowledge level lower than the actual level. This overconfidence of the group with low political knowledge was due to their lack in meta-cognitive ability, which indicates ignorance of ignorance. This confirms that the Dunning-Kruger effect takes place in the realm of political knowledge. Another finding was that the group with high political knowledge was engaged in conven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 while the group with low political knowledge was engaged in slacktivism. Conven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 involves voting behaviors and political discussions about candidates. On the other hand, slacktivism refers to activities such as reading or posting online political posts through Facebook and YouTube. It is considered as an activity that does not affect actual political change even though it deals with much information and opinion. This study also found that the perceived political knowledge served as a moderating variable in a way to amplify the effect of actual political knowledge on political participation. Additionally, political discussion was proved to be useful in order to improve the misconception about one's level of political knowledge. However, news use was not a significant helper. This study contributes to political communication studies by expanding the concept of political knowledge and adding a rich interpretation to it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psychological theories.

Keywords: Political knowledge, Dunning-kruger effect, Political participation, Slacktivism, Political dialogue

1. 서론

“우리 시대가 겪는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무지한 자들은 지나친 확신을 가지고 지식인들이 지나친 의심을 가진다는 데에 있다.”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이 칼럼을 통해 지적한 문제다(Russell, 1998, p. 28). 지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피력하지 못하는 현상을 비판한 것이다. 이 현상의 원인은 자신의 능력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하거나 평가절하하는 심리적 편향 때문이다.

무지한 사람들이 갖는 지나친 자기 확신 또는 과대평가는 정치 이슈와 관련해 잘 드러난다. 자신의 정치 지식을 과신하며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정치적 판단과 참여에 나서기 때문이다(Anson, 2018). 정치 영역에서 개개인의 지식, 판단, 의견, 참여가 모여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고, 이는 정치와 행정에서 중요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치적 무지와 과신은 민주적 의사 결정과 집행의 과정에 근본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오르톨레마와 스노우버그(Ortoleva & Snowberg, 2015)는 자신의 정치 정보를 확신하는 개인들이 투표 행위에 활발히 참여하며, 정치적으로 극단적이기 쉽다고 지적하였다.

정치적 무지와 자기 확신의 관계는 그동안 국내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충분히 분석되지 않았다. 많은 연구들이 정치 현안이나 제도에 대한 지식을 갖춘 경우를 식견있는 시민(informed citizen)으로 규정해왔을 뿐이다. 식견이 부족한 또는 무지한 시민(uninformed citizen)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정치 지식을 과신하는 시민(overconfident citizen)을 탐구하는 시도도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정치 지식과 확신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접근을 시도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지식 수준과 자기평가의 관계를 설명하는 더닝-크루거 효과(Dunning-Kruger effect)를 적용해 이 문제에 답하고자 했다. 크루거와 더닝(Kruger & Dunning, 1999)에 따르면, 특정 영역에서 능력이 부족한 개인들은 자신의 능력을 평균 이상으로 과대평가하는 반면, 능력이 뛰어난 개인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한다. 이를 정치 커뮤니케이션 영역에 적용하면, 정치 지식이 낮은 개인일수록 자신의 정치 지식 수준을 과대평가하고, 정치 지식이 높은 개인일수록 자신의 정치 지식 수준을 과소평가할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예상이 어려운 이유는 더닝-크루거 효과가 그동안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학 전반으로 넓혀도 일부 연구가 더닝-크루거 효과를 언급만 할 뿐, 실제 연구 설계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Cowen, 2005; Lassen & Serritzlew, 2011).

더 나아가 더닝-크루거 효과를 감안하면 현재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사용하는 정치 지식 측정 방식에 보완이 필요하다. 정치 지식 측정은 크게 주관적 방식과 객관적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류재성, 2010). 전자는 설문조사 응답자에게 자신의 정치 지식 수준을 스스로 평가하고 응답하게 하는 방식이다. 후자는 응답자가 몇 개의 퀴즈에 응답하게 한 뒤 정답 개수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정치 지식을 평가하는 두 가지 방식이 서로 다른 개념을 측정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전자는 인지된 정치 지식을, 후자는 실제 정치 지식을 측정한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전자의 방식에서는 높게 평가된 응답자가 후자의 방식에서 낮게 평가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나타난다. 실제 정치 지식의 수준이 낮은 사람이 자신의 수준을 높게 과대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치 지식은 인지된 정치 지식과 실제 정치 지식으로 나뉘 접근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선 더닝-크루거 효과가 정치 지식의 영역에서 실제 나타나는지 검증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정치 지식의 수준에 따라 자신의 정치 지식을 과대평가 또는 과소평가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자신의 정치 지식에 대한 과대평가 또는 과소평가가 정치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해 보았다. 이어서 본 연구는 뉴스 이용과 정치 대화를 통해 이와 같은 정치적 오신(誤信, *misconfidence*)과 부적절한 정치 참여를 개선할 가능성을 탐구해 보았다.

본 연구는 정치 지식 수준과 자기 평가를 핵심으로 뉴스 이용, 정치 대화, 정치 참여 등이 어떻게 재구성되는지를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치적 무지에 대한 무지(과대평가)를 바탕으로 정치 대화와 정치 참여의 구조를 재맥락화하고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구와 사회심리학의 접목은 정치 지식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의 이론적 빈틈을 메우고, 정치 지식에 대한 새로운 개념적 통찰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한다.

2. 이론적 논의

1) 정치 지식에서의 더닝-크루거 효과(Dunning-Kruger effect)

사회심리학 연구에서는 과신(*overconfidence*)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 연구는 크게 과대평가(*overestimation*), 과대설정(*overplacement*), 과대확신(*overprecision*)의 3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Anson, 2018). 먼저, 과대평가는 자신의 능력을 실제보다 더 높이 평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과대설정은 자신의 능력을 타인과 비교하였을 때 평균 이상이라고 평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과대설정을 과대평가와 구분하기 위해 '평균 이상 효과(The

Better-Than-Average Effect)'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편, 과대확신은 자신이 보유한 정보가 실제보다 더 정확하다고 평가하는 현상을 뜻한다. 요약하자면, 과대평가는 자신의 원점수에 대한 과신을, 과대설정은 자신의 백분위에 대한 과신을, 과대확신은 자신의 정답률에 대한 과신을 의미한다. 사회심리학자 페스팅거(Festinger, 1954)의 사회비교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평가할 때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많은 과신 관련 연구들은 주로 과대설정(평균 이상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과대설정(평균 이상 효과)은 성격, 지식, 건강 등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난다. 이는 심리학 실험실이라는 특수한 상황뿐 아니라 교실, 병원, 직장 등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흔히 발생한다(Ehrlinger, Johnson, Banner, Dunning, & Kruger, 2008). 예를 들어, 대학 교수의 강의 능력을 조사한 크로스(Cross, 1977)에 따르면, 전체 교수의 94%는 자신의 강의 능력이 평균 이상이라 평가하였다. 이 가운데 68%는 자신의 강의 능력을 상위 25%에 속하는 것으로 과대설정하였다. 와인스타인(Weinstein, 1987)은 잠재적 위기에 대한 긍정적 편향을 통해 과대설정 현상을 관찰하였다. 이에 따르면, 사람들은 타인과 비교하였을 때 자신이 피부암, 폐암, 당뇨, 알코올 중독 등의 건강 문제로부터 평균 이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평균 이상 효과는 키와 몸무게 등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는 영역보다, 성격과 외모 등 평가 기준이 모호한 영역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펠슨(Felson, 1981)에 따르면, 축구 선수들은 달리기 속도나 체격 등의 영역보다 정신력이나 축구 센스와 같은 영역에서 자신을 더 과대설정하고 있었다.

한편, 과신의 경향이 서구 문화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겸손이 미덕인 일본과 같은 문화권에서는 제한적으로 나타난다는 지적도 있었다(Markus & Kitayama, 1991). 리 등(Lee et al., 1995)은 이를 검증하기 위해 미국 대학생과 중국, 인도, 싱가포르, 대만 대학생의 자기 지식에 대한 과신의 수준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미국 대학생이 아시아권 대학생보다 강한 과대설정(평균 이상 효과)의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택(2014)의 연구에서는 한국인이 미국인에 비해 낮은 수준의 과대설정(평균 이상 효과)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예의 바른, 성실한, 불친절한, 게으른 등)에 대해 자신이 타인들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답하게 하였다. 한국인의 학업 성취 평가를 연구한 고여진(2006)에 따르면, 대부분의 한국인 대학생들은 자신의 중간고사 점수를 평균보다 높게 예상했다. 이런 과대설정은 성적 상위 집단보다 하위 집단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요약하자면, 과대설정(평균 이상 효과)은 동양권보다 서구권에서 영역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수의 과대설정은 비현실적이다. 한 사회에서 과반수 넘는 사람들이 평균 이상의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크루거와 더닝(1999)은 메타 인지 능력(Meta-cognitive Skill)의 결여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메타 인지 능력이란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파악하는 능력으로, 인지에 대한 인지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¹⁾ 예를 들어, 수학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자신이 함수는 잘 알지만 확률은 잘 모른다고 판단한다면, 이 경우 높은 메타 인지 능력을 갖춘 것이다. 메타 인지 능력이 낮은 학생은 자신이 수학의 어떤 부분을 모르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 후 자신의 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도 알 수 없다. 실제 신카비츠(Sinkavich, 1995)의 연구에서 시험 점수가 낮은 학생들은 시험 점수 높은 학생들에 비해 자신이 무엇을 맞혔고 무엇을 틀렸는지 구분하지 못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어떤 영역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자신의 수준을 과대평가하는 크루거-더닝 효과의 타당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해당 영역에 대한 능력 부족은 메타 인지 능력의 부족을 의미하며,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에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능력(지식)이 충분한 경우엔 높은 메타 인지 능력을 갖추어 이와 같은 과대평가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크루거와 더닝(1999)은 피험자들에게 문법 문제를 풀게 하고 문법 지식 수준을 측정하였다. 이후 피험자 자신의 수준이 다른 피험자들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인지 예상하여 답하게 하고, 이를 앞서 측정한 실제 문법 지식 수준과 비교해 보았다. 이와 함께 피험자에게 자신이 문법 문제 가운데 무엇을 맞혔고 틀렸는지 응답하게 해 메타 인지 능력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문법 점수 하위권의 피험자들은 자신의 수준이 평균 이상일 것이라 크게 부풀려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타 인지 능력과 관련해서, 문법 점수 상위권의 피험자들은 자신의 정답과 오답을 정확히 구분해냈지만, 하위권의 피험자들은 이를 구분해내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문법 수준 하위권 집단은 메타 인지 능력의 부족으로 자신들의 문법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상위권 집단은 충분한 메타 인지 능력을 바탕으로 심지어 자신의 능력을 다소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상위권 집단에게는 다른 피험자들도 자신만큼의 지식을 갖췄을 것이라고 예

1) 메타 인지는 자신의 인지적 활동에 대한 지식과 조절을 의미한다(Brown, 1978; Flavell, 1979). 인지적 과제를 수행할 때 자신이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를 아는 것부터 모르는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과정을 개선하고 계획을 수정하는 행동까지 포함한다. 즉, 메타 인지는 인지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cognition)과 인지에 대한 조절(regulation of cognition)의 2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전자를 메타인지적 지식(metacognitive knowledge), 후자를 메타인지적 기술(metacognitive skill)로 구분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크루거와 더닝(1999)을 따라 메타 인지 능력을 자신의 인지적 활동에 대한 지식의 수준으로 좁게 규정한다.

상하는 허위 합의 효과(false-consensus effect)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더닝-크루거 효과(Dunning-Kruger Effect)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현상으로 규정되었다. 이 현상은 유머, 체스, 토론, 대학 시험 등 영역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Dunning, Johnson, Ehrlinger, & Kruger, 2003; Ehrlinger et al., 2008; Kruger & Dunning, 1999).

더닝-크루거 효과가 정치 지식의 실제와 인식을 포괄해 풍부한 설명을 제공함에도 정치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관련 연구는 많지 않다. 선행 연구들은 더닝-크루거 효과의 관점을 채택하지 않고 정치 지식에 대한 과신 현상을 설명하거나, 더닝-크루거 효과를 피상적으로 적용해 원인 규명에 부족함을 보였다. 전자의 예로, 오르톨레바와 스노우버그(Ortoleva & Snowberg, 2015)의 연구는 정치적 행위에서의 자기과신 현상을 설명했다. 연구 결과, 자신이 보유한 정치 정보가 정확하다고 판단할수록 이념적으로 극단적이고,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지 정당과의 일체감을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 더닝-크루거 효과가 이론적 바탕으로 사용됐다면 실제와 인식의 영역을 나눠 과신의 발생 기제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을 것이다. 후자의 예로, 앤슨(Anson, 2018)은 정치 지식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수준을 과대설정함을 밝혔다. 이러한 경향은 동기화된 추론(motivated reasoning) 때문에 지지 정당에 대한 일체감이 높을수록 더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정당 일체감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정치 지식을 평가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앤슨의 연구는 정치 지식 영역에 더닝-크루거 효과를 적용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정치 지식과 메타 인지 능력 간의 관계를 검증하지 않아 더닝-크루거 효과에 대한 부분적 검증에 그쳤다. 그 밖의 연구들에서도 정치 지식에 대한 과신이 어떠한 정치적 의사 결정 행위로 이어지는지, 이러한 과신은 어떻게 교정될 수 있을 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더닝-크루거 효과가 정치 지식의 영역에서도 나타나는지 우선 검증하고자 한다. 이 효과에 따르면, 정치 지식이 낮은 집단은 자신의 지식 수준을 과대설정하고, 정치 지식이 높은 집단은 반대로 자신의 지식 수준을 과소설정해야 한다. 그 이유는 자신의 실제 정치 지식 수준에 대한 메타 인지 능력의 차이에 기인한다. 다시 말하면, 정치 지식이 낮은 집단은 자신의 낮은 수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므로(무지에 대한 무지) 타인에 비해 높은 정치 지식을 가졌다고 오관하게 된다. 반면, 정치 지식이 높은 집단은 자신의 수준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며 타인의 수준도 높을 것으로 유추해 자신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추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연구가설 1에서 정치 지식을 대상으로 더닝-크루거 효과를 검증해 보겠다. 연구가설 2는 더닝-크루거 효과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메타 인지 능력과 관

런된다. 정치 지식이 높을수록 각종 사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한 판단 능력(메타 인지 능력)에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연구기설 1-1: 정치 지식이 낮은 집단은 타인과 비교한 자신의 정치 지식 수준을 과대설정²⁾할 것이다.

연구기설 1-2: 정치 지식이 높은 집단은 타인과 비교한 자신의 정치 지식 수준을 과소설정할 것이다.

연구기설 2: 정치 지식과 이에 대한 메타 인지 능력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2) 정치 참여: 전통적 참여와 슬랙티비즘

자신의 정치 지식을 과신하는 경우에 어떤 정치 참여 양상을 보일까? 이에 답하기 위해 정치 지식과 정치 참여를 연계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버바와 니(Verba & Nie, 1987)는 정치 참여를 “사적 시민들이 정부 인사의 선출이나 정책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벌이는 행위”(p. 2)라고 정의하였다. 반 데스(Van Deth, 2014)는 다양한 정치 참여 관련 정의를 검토하고, 이 개념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다. 시민(citizen), 행위(activity), 자발성(voluntariness), 정치 시스템(political system)이 그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정치 참여는 시민들이 정부 구성이나 정책 결정 등의 정치 시스템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정치 참여의 유형으로는 관습적 정치 참여(conven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와 비관습적 정치 참여(unconven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가 있다. 관습적 정치 참여에는 투표, 유세장 참여, 기부, 선거 운동 봉사 등 선거와 정당 관련 일반적 행동이 모두 포함된다(Verba & Nie, 1987). 반면, 비관습적 정치 참여에는 시위 참여, 서명 운동, 보이코트(boycott) 등 제도권 정치 활동에 속하지 않는 모든 행동이 포함된다(Van der Meer & van Ingen, 2009).

최근에는 새로운 정치 참여 유형으로 슬랙티비즘(slacktivism)이 주목받고 있다. 슬랙티비즘은 게으른 행동주의를 뜻하는 ‘slacker activism’의 약어로, 온라인 상에서 별다른 노력없

2) 앞서 과신(overconfidence)의 유형으로 과대평가(overestimation), 과대설정(overplacement), 과대확신(overprecision) 3가지를 제시했다. 본 연구는 이 가운데 과대설정에 초점을 맞춘다. 왜냐하면 더닝-크루거 효과는 타인과 비교한 자신의 위치에 대한 오판(사회적 판단 실수)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 지식이 낮은 집단은 메타 인지 능력의 부족으로 타인에 비해 자신의 능력을 과대설정한다. 과대설정은 또한 사회 속 타인보다 자신이 우위라는 착각을 만들어 다른 사회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메타 인지 능력을 갖추지 못한 정치 지식 낮은 집단이 자신에 대한 과대설정을 바탕으로 지나친 정치 참여에 나서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는 과대설정을 바탕으로 더닝-크루거 효과의 정치 대화 및 정치 참여 관련성을 분석했다.

이 행해지는 정치 활동에 대한 멸칭이다. 안락의자 행동주의(*armchair activism*)나 클릭티비즘(*clicktivism*)과 같은 용어들과 혼용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슬랙티비즘은 현실 정치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참여자에게 정치에 참여했다는 만족감만 주는 온라인 참여 행위를 일컫는다(Christensen, 2011). 예를 들면, 소셜 미디어 이용자가 실천적 행위에 참여하지 않고, 관심있는 게시글을 서핑하며 간간이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를 떠올리면 된다(Glenn, 2015). 이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 유세장에 참여하거나 기부하는 행위에 비하면 이용자에게 편리하지만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한다. 모로조프(Morozov, 2012)는 슬랙티비즘을 자기도취적이고, 자기 과신적이며, 공허한 인터넷 정치 활동이라고 보았다. 슬랙티비즘의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실효성 있는 정치 참여라고 할 수 없음에도, 슬랙티비즘 참여자들은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이다. 숄만(Shulman, 2014)도 인터넷 정치 참여 행위는 현실 정치 참여 행위로 이어지지 않아 어떤 사회적 개선에도 도움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크리스텐센(Christensen, 2011)은 온라인 투표나 정치적 목적의 해킹 등은 현실 세계에 드러나지 않지만, 큰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므로 온라인 정치 활동과 슬랙티비즘을 구분하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슬랙티비즘은 정치 참여의 장이 인터넷으로 확장된 것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무시할 수 없는 슬랙티비즘은 오늘날 전통적 정치 참여와 비교되며 중요한 정치 행위로 간주된다. 전통적 정치 참여는 현실 정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인지적 자원을 필요로 하는 실질적·실천적 행위이다. 이 점에서 명목적·심리적 정치 참여라고 할 수 있는 슬랙티비즘과 질적 차이를 보인다. 한편,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사용된 온라인 정치 참여는 대체로 슬랙티비즘이라기보다 온라인에서 행해지는 전통적 참여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투표, 정치인 연락, 선거 자금 모금 등은 전통적이며 관습적인 정치 참여에 해당한다(Kenski & Stroud, 2006). 또한 온라인을 통해 반대 모임을 구성하거나 서명 운동을 벌이는 경우도 자주 관찰된다. 이러한 모임과 운동은 온라인 상에서 나타나지만 명목적이라기보다 실천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경우도 슬랙티비즘보다 비관습적 정치 참여라고 할 수 있다.

정치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정치 지식은 정치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간주되어 왔다(Druckman, 2005). 정치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은 정치 정보 탐색에 적극적이며, 이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효율적이고 분석적이다(Lodge & Hamill, 1986). 또한 정치 지식은 정치 효능감을 형성케 하고, 활발한 정치 참여에도 기여한다(Jung, Kim, & de Zúñiga, 2011). 정치 지식을 풍부히 갖춘 개인일수록 그를 바탕으로 숙고된 정치적 의사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정치 지식이 부족한 개인에 비해, 정치 참여의 양적인 차원뿐 아니라 질적인 차원에서도 뛰어나다. 따라서, 정치 지식은 민주 시민의 필수 덕목이고, 충분한 정치 지식을 보유한 시민들

은 속의 민주주의의 토대이다(Delli Carpini & Keeter, 1996).

본 연구에서는 정치 참여를 슬랙티비즘과 전통적 정치 참여로 나누고, 실제 정치 지식 및 인지된 정치 지식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치 지식은 정치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Druckman, 2005). 정치 지식이 높을수록(낮을수록) 정치 참여가 강화(약화)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 지식이 낮은 집단은 모든 유형의 정치 행위에 소극적일까? 본 연구는 정치 지식이 낮은 집단이 슬랙티비즘 방식의 정치 참여에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가정한다. 첫째 이유는 정치 참여를 손쉽게 만드는 요즘의 미디어 환경이다. 모바일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 이용자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정치적 의견을 교환하고 단체 행동에 참여할 수 있다. 이른바 미디어 동원(media mobilization) 능력이 최대화된 상황이다(Kann, Berry, Gant, & Zager 2007). 이런 미디어 환경에서 정치 지식이 낮은 집단이 자연스레 정치에 참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둘째로 슬랙티비즘의 성격이 정치 지식이 낮은 집단의 위치와 활동과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크리스텐센(2012)은 슬랙티비즘의 성격으로 분리(detachment), 비활동성(inactivity), 무능력(incompetence)을 꼽는다. 전통적 정치 참여 공간에 포함될 수 없으며, 전통적 정치 참여 활동에 동참할 수 없으며, 정치적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능력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치 지식이 낮은 집단도 그동안 전통적 정치 참여 공간의 밖에 머물렀고, 전통적 정치 참여 활동을 벌이지도 않았고, 정치 과정에 영향을 미칠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이를 종합하면,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정치 지식이 낮은 집단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자연스레 정치 참여를 하게 되며, 그 방식은 비전통적이고 실질적 효과가 없는 슬랙티비즘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반면, 정치 지식이 높은 집단은 그동안 전통적 정치 참여 공간을 주도했던 능력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 지식을 바탕으로 여론 형성에 기여하며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했던 집단이다. 여기에서는 정치 지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참여와 강한 영향력 발휘가 가능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정치 지식이 낮을수록 슬랙티비즘 방식의 정치 참여를 보이고, 정치 지식이 높을수록 전통적 정치 참여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 연구가설 3-1과 4-1이 제시됐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정치 지식과 별도로 인지된 정치 지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 정치 지식에 비해 인지된 정치 지식이 더 높은 경우에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신을 갖게 된다고 앞서 설명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정치 지식이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인지된 정치 지식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 정치 지식이 낮은 집단은 그만큼 낮은 수준의 정치 참여를 보일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 집단은 더닝-크루거 효과에 따라 자신의 실제 정치 지식보다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과신한다. 결국 실제 지식보다 높아진 인지된 정

치 지식 탓에 예상보다 높은 정치 참여를 보이게 된다. 과신은 긍정적 현상이 아니지만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자신의 지적 능력이 실제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할수록 정치에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충분히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실제 지적 능력이 낮은 집단이 활발히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기효능감이 정치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선행연구에서 검증됐다(Solhaug, 2006). 이와 같은 현상은 정치 지식이 높은 집단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이 집단이 높은 수준의 인지된 정치 지식을 갖추면 자기효능감의 증가를 바탕으로 더 활발한 정치 참여를 보일 수 있다. 에링거와 더닝(Ehrlinger & Dunning, 2003)은 실험을 통해 인지된 정치 지식이 정치 지식에 따른 정치 참여 활성화의 강도를 증폭시킬 수 있음을 보여줬다. 위 논의는 인지된 정치 지식이 실제 정치 지식과 정치 참여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 연구 가설 3-2와 4-2가 제시됐다.

연구가설 3-1: 정치 지식이 낮을수록 슬랙터비즘에 활발하게 참여할 것이다.

연구가설 3-2: 앞서 정치 지식이 슬랙터비즘에 미치는 영향은 인지된 정치 지식이 높을 때 더욱 강해질 것이다.

연구가설 4-1: 정치 지식이 높을수록 전통적 정치 참여에 활발할 것이다.

연구가설 4-2: 앞서 정치 지식이 전통적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인지된 정치 지식이 높을 때 더욱 강해질 것이다.

3) 뉴스 이용과 정치 대화

자신의 정치 지식 수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정치 참여 양상을 바꿀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정치 지식이 높은 집단은 정확한 자기 인식을 바탕으로 더 활발한 전통적 정치 참여를 보일 수 있으며, 정치 지식이 낮은 집단은 자기 인식을 정확히 함으로써 무의미한 정치 참여를 덜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치 지식에 대한 잘못된 자기설정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정치 커뮤니케이션에서 뉴스 이용과 정치 대화는 정치 지식의 증진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정치 지식이 많을수록 정보 추구 성향이 강하고 정치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기 때문에, 뉴스 이용이나 정치 대화에 더 활발하게 참여하게 된다. 이처럼 커뮤니케이션 변인과 정치 지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적 논의가 있어 왔다(Luskin, 1990; Neuman, 1986). 뉴스 이용과 정치 대화가 정치 지식과 인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시계열 분석에서도 검증되었다(김민규·신인영·권미홍·김주환, 2011; Eveland, Hayes, Shah, & Kwak, 2005).

본 연구에서는 뉴스 이용이 정치 지식이 낮은 집단의 자기설정 개선에 효과적이며, 정치 대화는 정치 지식이 높은 집단에서 자기설정 개선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우선, 뉴스 이용은 정치 지식이 낮은 집단의 메타 인지 능력을 높여 정확한 자기 인식으로 이끌 가능성이 있다.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정치 지식은 학교에서 배울 수 있지만, 주요 정치 행위자의 이름, 정치 현안, 정당 간 정치 성향 등 현실적 정치 지식은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다(Delli Carpini & Keeter, 1996). 이브랜드 등(Eveland et al., 2005)도 뉴스 미디어가 정치 지식의 가장 큰 공급원임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신문은 정보 전달의 기능을 담당하고, 특정 이슈에 대한 자세한 해석을 전달하기 때문에 뉴스 이용자들에게 인지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돼 왔다. 신문을 많이 읽을수록 정치 지식이 풍부하다는 연구결과가 여러 차례 있어 왔다(Eveland & Scheufele, 2000). 텔레비전은 인쇄 매체에 비해 정보의 휘발성이 강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시각적·청각적 단서들을 활용해 수용자들로 하여금 정치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는 장점이 있다(Weaver & Drew, 1995; 이효성, 2003). 텔레비전과 정치 지식 간의 상관관계를 탐색한 초기 연구들(Wagner, 1983)에서는 텔레비전 시청이 정치 지식과 무관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이용 동기의 차이에 따른 차별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 때문에 최근 연구들에서는 정보적 동기에 따른 텔레비전 뉴스 시청이 정치 지식 증진에 기여한다는 보고가 많다(Chaffee, Zhao, & Leshner, 1994; Eveland & Scheufele, 2000). 마찬가지로, 정보적 동기에 따른 웹 사이트 이용도 정치 지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로셰크와 디미트로바(Groshek & Dimitrova, 2011)는 온라인 뉴스에 대한 노출도와 주목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정치 지식도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도 김희조와 조재호(2015)는 언론사 사이트나 포털 사이트를 통해 뉴스 시사 정보를 이용할수록 정치 지식이 높아짐을 관찰하였다.

앞서 정치 지식이 낮은 집단의 문제는 실제보다 자신의 수준을 과대설정하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메타 인지 능력의 부족 때문이었다. 크루거와 더닝(1999)은 논리 추론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집단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강의를 통해 지식 수준은 물론 메타 인지 능력을 높인 것이다. 피험자들은 강의 이후 자신의 논리 추론 능력을 재평가할 때, 비로소 자신들이 무지했음을 깨닫고 이전보다 낮게(정확하게) 응답하였다.

요컨대, 신문, 텔레비전, 웹 사이트를 통한 뉴스 이용은 정치 지식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정치 지식이 낮은 집단에게는 옳은 정보의 공급을 통해 메타 인지 능력의 향상을 가져온다. 따라서, 정치 지식이 낮은 집단이 뉴스 이용을 많이 한다면 자신의 수준에 과대설정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다음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연구기설 5: 정치 지식이 낮은 집단에서 뉴스 이용을 많이 할수록 정치 지식에 대한 자기설정의 정확도가 높아질 것이다.

정치 대화는 2단계 유통 이론(Two-step flow theory)의 맥락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Katz & Lazarsfeld, 1955). 미디어를 통해 정치 정보를 얻은 의견지도자(opinion leaders)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 습득한 정보를 확산시킨다는 것이다. 미디어 이용과 별도로 나타나는 정치 대화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된 계기였다. 실제 정치 대화의 참여자들은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토론을 통해 정보의 질을 정교화하며 정치 지식을 늘려 나간다(Eveland, 2004). 이와 같은 정치 대화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서는 정치를 주제로 한 일상적 대화부터 일정한 양식을 갖춘 정치 토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연구되어 왔다(Eveland, Morey, & Hutchens, 2011; Wyatt, Katz, & Kim, 2000). 또한 인터넷이 주요한 정치 대화의 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인터넷 게시판과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한 온라인 정치 대화에 대한 논의들도 잇따랐다. 샤, 조, 이브랜드, 그리고 콕(Shah, Cho, Eveland, & Kwak, 2005)은 인터넷을 정치 정보 습득과 여론 표출이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광장이라 보았고, 인터넷 정치 대화의 확대는 정치 대화를 보완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정치 대화는 자신의 정치 지식 수준에 대한 객관적 평가 능력을 높인다. 타인과 대화를 통해 자신의 정치 지식 수준의 상대적 위치를 실감하게 하기 때문이다. 평소 정치 지식이 높은 집단은 타인들도 자신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자신을 과소설정한다. 일종의 허위합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더닝 등(Dunning et al., 2003)의 연구에서 고득점을 한 집단은 자신의 원점수는 비교적 정확히 예상하지만, 자신의 백분위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들의 과소설정은 결국 자신의 능력에 대한 오인이 아니라 타인의 능력에 대한 과대평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따라서 능력이 뛰어난 집단의 과소설정은 다른 사람들의 능력 수준을 보여줌으로써 바로잡을 수 있다. 크루거와 더닝(1999)은 고득점 집단에게 다른 참여자들의 시험 결과를 보여주고, 다시 자신의 백분위를 평가하게 하였다. 그 결과 자신의 백분위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지식이 높은 집단에게 정치 대화는 타인의 수준을 공개하는 기회로 작용한다. 이를 통해 과대평가했던 타인의 지식 수준을 바로잡고, 상대적으로 자신의 지식 수준의 위치를 실제와 가깝게 재평가하게 된다.

요컨대, 정치 지식이 높은 집단은 정치 대화를 통해 과대평가했던 타인의 정치 지식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고, 자신의 수준을 과소설정하는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다음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연구기설 6: 정치 지식이 높은 집단에서는 정치 대화를 많이 할수록 정치 지식에 대한 자기설정의 정확도가 높아질 것이다.

3. 연구 방법

1) 설문조사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연구기설을 검증하기 위해 조사 전문업체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업체가 온라인 패널 1,321,873명 가운데 10,081명에게 설문조사를 요청해 657 명이 응답했다. 응답률은 6.52%였다. 이 가운데 부실 응답을 제외하고 만19세 이상 561명이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됐다. 조사 기간은 2019년 10월 2일부터 10월 8일까지였으며, 조사 방식은 온라인 응답으로 실시됐다. 표집은 성별과 연령대를 기준으로 전국 인구 비율과 유사하게 할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최종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 51.7%와 여성 48.3%로 집계됐으며, 연령대는 20대 17.3%, 30대 19.4%, 40대 22.5%, 50대 23.7%, 60대 17.1%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44.6세($SD = 13.1$)였다. 거주 지역은 서울 19.6%, 경기/강원권 33.7%, 충청권 10.2%, 호남권 10.5%, 경북권 10.0%, 경남권 16.0%로 집계되었다. 가구 소득은 월 평균 400만 원 정도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으로는 고졸 미만 1.1%, 고졸 15.3%, 대학교 재학 및 중퇴 10.4%, 대학교 졸업 62.7%, 대학원 이상 10.5%로 나타났다. 정치 성향도 '매우 보수적(= 1)'부터 '매우 진보적(= 7)'에 답하는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응답자 평균은 4.19($SD = 1.22$)의 중도 성향으로 나타났다.

2) 변인의 측정

(1) 실제 정치 지식

실제 정치 지식은 정치적 사실에 대한 객관적 인지 정도로 측정된 정치 지식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들에서 정치 퀴즈를 응답자들에게 제시하고 정답 개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측정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실제 정치 지식을 측정하였다. 다만, 정치 지식에 대한 자기 인식이 중요한 연구이므로 퀴즈 문항의 난이도 조절에 주의를 기울였다. 주어진 과제가 너무 어려우면 응답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너무 쉬우면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다 (Ortoleva & Snowberg, 2015). 다시 말해, 응답자들에게 주어진 정치 퀴즈의 난이도가 적절

치 않으면, 응답자들의 자기 평가가 극단적으로 상향-하향 평준화가 되어 버린다는 문제가 있다.

델리 카피니와 키터(Delli Carpini & Keeter, 1993)는 미국 선거 관련 설문조사에서 사용한 정치 지식 척도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통령의 이름', '사법심사의 주체', '정당별 정치 성향', '하원 다수당의 이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 의회가 재가결하기 위해 필요한 찬성률' 등 5가지 문항이 가장 적절한 난이도와 변별력을 갖추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이 5가지 문항을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추어, '위헌법률심사의 주체', '제 1야당의 이름' 등을 묻는 식으로 수정하였다. 덧붙여, 본 연구는 응답자들을 정치 지식 정도에 따라 순위를 매길 필요가 있어 유사한 문항을 추가적으로 만들어, 최종적으로 10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사용된 문항은 '다음 중 현직 대통령비서실장은 누구입니까?', '다음 중 위헌법률심사의 주체가 되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지난 19대 대선 후보자 중 원자력 발전소 폐기에 반대한 후보자는 누구입니까?' 등이었다. 질문에 대한 응답이 정답이면 1점, 오답이면 0점으로 채점하여 최종 정치 지식을 측정하였다($M = 6.91, SD = 2.19$). 이후 분석에서는 인지된 정치 지식과의 직접적인 비교를 위해 백분위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M = 56.8, SD = 29.9$).

(2) 정치 지식에 대한 메타 인지 능력

크루거와 더닝(1999)의 연구에서 응답자들은 문법 지식 측정 문항에 이어 '위 질문에 대한 본인의 답변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하였다. 이후 정답과 오답을 잘 분류한 정도를 점수화하여 메타 인지 능력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해 메타 인지 능력을 측정하였다($M = 7.32, SD = 1.79$).

(3) 인지된 정치 지식

크루거와 더닝(1999)은 문법 지식에 대한 자기평가를 측정할 때 응답자에게 자신의 수준을 백분위로 평가하게 하였다. 백분위는 그 자체로 다른 참여자와의 비교를 전제하고 있어, 이후 실제 능력 수준과의 직접적인 비교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도 이에 따라 정치 지식에 대한 자기평가를 백분위로 응답하게 하였다. 구체적으로, 응답자에게 '본인의 정치 지식 수준이 100명 중 몇 등 정도 되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은 뒤 101에서 해당 값을 빼는 방식으로 측정하였다($M = 45.7, SD = 26.1$).

(4) 정치 참여

선행연구를 참조해 전통적 정치 참여와 슬랙티브리즘에 해당하는 8개 항목에 대한 참여 정도를 측

정하였다. 전통적 정치 참여는 그 측정 문항이 버바와 니(1987)가 정의한 대로 “시민들이 정책 결정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하는 행동들”에 가까운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전통적 정치 참여를 측정할 선행 연구들(금희조·조재호, 2015; 장석준·유승관, 2017)에서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전통적 정치 참여 측정 문항으로 이용하였다. 또한, 슬랙티비즘은 그 측정 문항이 크리스텐센(2011)이 정의한 대로 “현실 정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온라인 정치 참여 행위”에 가까운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슬랙티비즘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Christensen, 2011; Morozov, 2012)에서 사용한 슬랙티비즘의 예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슬랙티비즘 측정 문항들을 만들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부터 ‘매우 자주 참여한다’까지 7점 척도로 진행되게 하였다.

응답 데이터를 요인 분석한 결과 아래 <Table 1>에서와 같이 3가지 요인으로 나뉘었다. ‘정치적인 목적의 SNS 그룹에 가입한다.’, ‘SNS 프로필을 통해 자신의 정치 성향을 드러낸다.’, ‘정치인이나 정당의 페이스북, 유튜브 등 계정을 팔로우하거나 구독한다.’ 와 같은 슬랙티비즘 관련 문항들($M = 2.43, SD = 1.62$)은 기대했던 대로 하나의 요인으로 적재되었다. 그러나 전통적 정치 참여 관련 문항들은 2개 요인으로 나뉘었다. 본 연구진은 이를 관습적 정치 참여와 비관습적 정치 참여로 명명하였다. 반 데스(van Deth, 2014)에 따르면, 전통적 정치 참여는 제도적 영역에서 발생하는가를 기준으로, 투표와 같은 관습적 정치 참여와 서명 운동과 시위와 같은 비관습적 정치 참여로 나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도 <Table 1>과 같이 전통적 정치 참여를 관습적 정치 참여($M = 5.16, SD = 1.44$)와 비관습적 정치 참여($M = 2.96, SD = 1.61$)로 분류하였다.

Table 1. Factor Analysis of Political Participation

	Conven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	Unconven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	Slacktivism
I vote for each election.	.898	.099	-.112
I watch the candidates' discussions at each election.	.838	.183	.248
I participate in online signature movement on political issues.	.210	.845	.289
I participate in offline signature campaigns on political issues.	.194	.841	.317
I participate in demonstrations or meetings for political purposes.	.039	.767	.434
I join SNS groups for political purposes.	.022	.303	.897
I reveal my political orientation through SNS profile.	.018	.378	.856
I follow or subscribe to politicians or political parties' Facebook, YouTube, and other media accounts.	.139	.327	.852
Eigen-value	1.611	2.395	2.710
Explained variance(%)	20.132	29.936	33.874
Cronbach's α	.718	.883	.927

(5) 뉴스 이용

뉴스 이용은 정치 관련 뉴스를 얻기 위해 종이신문, 공중파 방송, 종편/케이블 방송, 포털 사이트, 언론사 사이트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지를 물어 측정하였다. 응답자는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부터 '매우 자주 이용한다'까지 7점 척도로 답하였다. 이후 각 매체의 이용 수치의 평균을 구해 분석에 사용하였다($M = 4.08, SD = 1.17$).

(6) 정치 대화

본 연구에서 정치 대화 문항은 금희조와 조재호(2015)의 연구를 참고해 구성되었다.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가족이나 친척들',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들', '직장 동료들', '온라인 상의 사람들'과 얼마나 자주 대화하였는지 물었다. 응답은 '전혀 하지 않는다' 부터 '매우 자주 한다'까지 7점 척도로 실시되었다. 분석에는 각 문항의 평균 값이 사용되었다($M = 3.63, SD = 1.34$).

(7) 정치 지식에 대한 자기설정 오차

자기설정 오차란 실제 정치 지식 대비 인지된 정치 지식의 정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정치 지식에서 인지된 정치 지식을 뺀 뒤 절댓값을 취하는 방식으로 구하였다($M = 23.6, SD = 18.7$). 자기설정 오차의 값이 작을수록 자신의 실제 정치 지식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였음을 뜻한다.

4. 연구 결과

1) 정치 지식에서의 더닝-크루거 효과

본 연구는 우선 정치 지식이 낮은 집단은 자신의 정치 지식을 과대설정하고, 정치 지식이 높은 집단은 자신의 정치 지식을 과소설정한다는 가설 1-1과 1-2를 검증해 보았다. 이를 위해 응답자들을 실제 정치지식 수준에 따라 사분위로 나누고, 각 사분위별 실제 정치 지식과 인지된 정치 지식의 평균을 구했다. 그 결과는 <Table 2>와 <Figure 1>에 나타나 있다. 정치 지식이 가장 낮은 1사분위는 자신의 정치 지식을 실제 정치 지식에 비해 높게 설정하였다. 반면, 2, 3, 4사분위는 자신의 정치 지식을 실제 정치 지식에 비해 낮게 설정하였다.

이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진은 실제 정치 지식과 인지된 정치 지식으로 구성된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제 정치 지식과 인지된 정치 지식의 차이는 사분위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상호작용 효과: $F = 121.404, p < .001$). 이어서 각 사분위의 어느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단순효과검증(simple effect test)을 실시하였다. 사분위 별로 대응표본 t검정(Paired Sample T-Test)을 4차례 실시한 것이다. 그 결과, <Table 4>와 같이 1사분위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자신의 인지된 정치 지식을 실제 정치지식에 비해 높게 설정하였다($t = 7.51, p < .001$). 반면, 2, 3, 4사분위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자신의 인지된 정치 지식을 실제 정치 지식에 비해 낮게 설정하였다(2사분위: $t = -3.13, p < .001$, 3사분위: $t = -9.67, p = .002$, 4사분위: $t = -17.9, p < .001$).

한편, 응답자 전체에서 인지된 정치 지식은 백분위 평균인 50을 넘지 못했다. 과반에 못 미치는 응답자만 과대설정(평균 이상 효과, 자신의 정치 지식 수준이 일반 사람들의 평균보다 높을 것이라는 생각)을 나타낸 것이다. 정치 지식이 낮은 집단인 1사분위도 인지된 정치 지식이 백분위 50을 넘지 못했다. 따라서 연구가설 1-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고, 연구가설 1-2는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실제 정치 지식 수준과 정치 지식에 대한 메타 인지 능력이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다는 연구가설 2를 검증해 보았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두 변인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r = 0.639, p < .001$)(<Table 5> 참조).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으로 무지한 집단은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에도 무지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가설 2는 지지되었다.

Table 2. Means of actual and perceived political knowledge scores for the four groups of political knowledge

	Actual political knowledge	Perceived political knowledge
First quartile	14.36	32.73
Second quartile	48.21	42.91
Third quartile	73.30	49.52
Fourth quartile	93.53	57.87
sum	56.81	45.70

Table 3.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groups of political knowledge and the difference between actual and perceived political knowledge

	SS	df	MS	F	p
Groups of political knowledge	407424.21	3	135808.07	392.776	< .001***
Actual vs. perceived political knowledge	35364.09	1	35364.09	115.4312	< .001***
Interaction effect	111582.2	3	37194.05	121.4044	< .001***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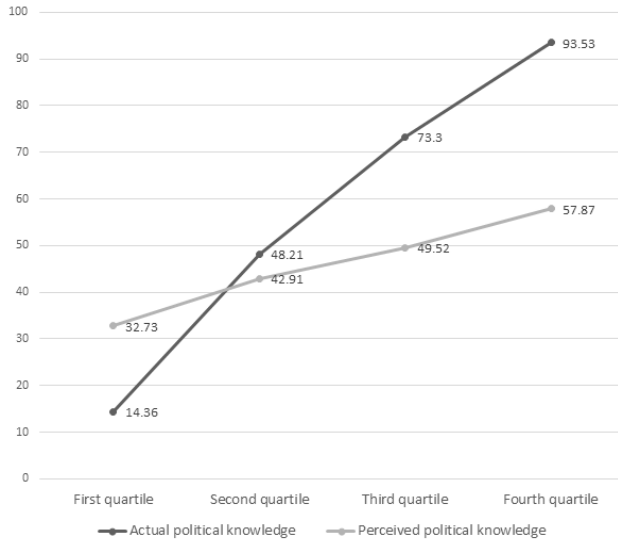


Figure 1. Means of actual and perceived political knowledge scores for the four groups of political knowledge.

Table 4. Simple effect test for the interaction effect shown in Table 3

	Actual political knowledge	Perceived political knowledge	Mean difference	t	p
First quartile	32.73(27.33)	14.36(7.63)	18.4	7.51	<.001**
Second quartile	42.91(22.77)	48.21(9.49)	-5.3	-3.13	.002**
Third quartile	49.52(23.84)	73.70(.00)	-23.8	-9.67	<.001***
Fourth quartile	57.87(24.50)	93.53(5.37)	-35.7	-17.9	<.001***
sum	45.70(26.09)	56.81(29.91)	-11.1	-8.29	<.001***

* $p < .05$. ** $p < .01$. *** $p < .001$.

Table 5. Correlation between actual political knowledge and metacognitive ability

	Actual political knowledge	Metacognitive ability
Actual political knowledge	-	
Metacognitive ability	0.639***	-

* $p < .05$. ** $p < .01$. *** $p < .001$.

2) 정치 참여

본 연구에서는 정치 지식이 낮을수록 슬랙티비즘에 활발히 참여하고, 정치 지식이 높을수록 전통적 정치 참여에 활발할 것이라고 연구가설 3-1과 연구가설 4-1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경향성은 인지된 정치 지식이 높을 때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연구가설 3-2와 연구가설 4-2에서 가정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진은 1사분위 집단을 기준으로 2, 3, 4사분위 집단을 더미변수

로 처리한 뒤,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서는 블록 1에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 통제변인을, 블록 2에 실제 정치 지식 수준에 따른 사분위 집단을, 블록 3에 사분위 집단에 인지된 정치 지식을 곁한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회귀분석 모형은 관습적 정치 참여, 비관습적 정치참여, 슬랙티비즘을 종속변인으로 3차례 분석되었다.

연구가설의 순서에 따라 먼저 슬랙티비즘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2사분위 집단이 1사분위 집단에 비해 슬랙티비즘에 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71, p = .038$). 4사분위도 1사분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으나, 그에 준하는 수준에서 슬랙티비즘에 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94, p = .051$). 인지된 정치 지식의 조절효과도 발견되었다. 인지된 정치 지식이 높을수록 실제 정치 지식과 슬랙티비즘의 부적인 관계가 증폭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사분위: $\beta = .178, p = .019$, 3사분위: $\beta = .183, p = .040$, 4사분위: $\beta = .189, p = .042$). 예를 들면, 1사분위 집단은 정치 지식이 높은 다른 집단에 비해 슬랙티비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정치 지식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그 참여의 격차가 더 커지는 것이다.

비관습적 정치 참여에 대한 분석 결과는 슬랙티비즘에서와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먼저 2사분위 집단은 1사분위 집단에 비해 비관습적 정치 참여에 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66, p = .039$). 인지된 정치 지식의 조절효과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인지된 정치 지식이 높을수록 실제 정치 지식과 비관습적 정치 참여의 부적인 관계가 더욱 증폭된다는 것이다(2사분위: $\beta = .250, p = .001$, 3사분위: $\beta = .205, p = .019$, 4사분위: $\beta = .258, p = .005$). 예를 들면, 1사분위 집단은 정치 지식이 높은 다른 집단에 비해 비관습적 정치 참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정치 지식이 높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 참여의 격차는 더 커지는 것이다.

반면, 관습적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1사분위 집단에 비해 4사분위 집단이 더 활발한 참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93, p = .038$). 인지된 정치 지식의 조절효과도 유의미하였다. 인지된 정치 지식은 1사분위와 비교해 다른 집단의 관습적 정치 참여의 격차를 더욱 키우는 것으로 분석되었다(2사분위: $\beta = .362, p < .001$, 3사분위: $\beta = .178, p = .032$, 4사분위: $\beta = .180, p = .039$). 다시 말하면, 실제 정치 지식이 높고, 자신의 정치 지식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투표와 같은 관습적 정치 참여에 더 활발히 참여하는 것이다. 위 결과에 따르면, 연구가설 3-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고, 연구가설 3-2는 지지되었다. 연구가설 4-1은 관습적 정치 참여에 한해서만 부분적으로 지지되었고, 연구가설 4-2는 지지되었다.

Table 6. Effects of actual and perceived political knowledge on political participation

	Slacktivism				Conven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				Unconven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			
	<i>B</i>	β	<i>t</i>	<i>p</i>	<i>B</i>	β	<i>t</i>	<i>p</i>	<i>B</i>	β	<i>t</i>	<i>p</i>
Block1												
Gender	-.328	-.102	-2.414	.016*	.153	.053	1.351	.177	-.072	-.022	-.544	.587
Age	.021	.169	3.771	.000***	.010	.095	2.270	.024*	.014	.118	2.682	.008**
Education	.069	.055	1.297	.195	.055	.049	1.227	.220	.125	.100	2.410	.016*
Income	.032	.049	1.167	.244	.068	.118	2.969	.003**	.020	.032	.765	.444
Political orientation	.144	.108	2.652	.008**	.064	.055	1.424	.155	.245	.186	4.642	.000***
<i>R</i> ²		.066				.089				.083		
<i>F</i> (5,555)		7.854***				10.819***				10.078***		
Block2 (reference group = First quartile)												
Second quartile	-.585	-.171	-2.084	.038*	-.335	-.110	-1.433	.152	-.565	-.166	-2.067	.039*
Third quartile	-.667	-.154	-1.634	.103	.257	.067	.756	.450	-.579	-.135	-1.456	.146
Fourth quartile	-.708	-.194	-1.955	.051	.628	.193	2.079	.038*	-.451	-.124	-1.279	.201
<i>R</i> ²		.001				.062				.005		
<i>F</i> (3,552)		.215				13.536***				.986		
Block3												
Second quartile X Perceived political knowledge	.012	.178	2.344	.019*	.022	.362	5.074	.000***	.017	.250	3.359	.001**
Third quartile X Perceived political knowledge	.014	.183	2.057	.040*	.012	.178	2.146	.032*	.016	.205	2.362	.019*
Fourth quartile X Perceived political knowledge	.011	.189	2.043	.042*	.009	.180	2.068	.039*	.015	.258	2.846	.005**
<i>R</i> ²		.022				.049				.038		
<i>F</i> (3,552)		4.477**				11.246***				8.044***		
Total <i>R</i> ²		.089				.200				.127		
<i>F</i> (11,549)		10.000***				12.508***				7.229***		

p* < .05. *p* < .01. ****p* < .001.

3) 뉴스 이용

본 연구는 뉴스 이용이 자기설정 오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연구가설에서 제시하였다. 연구가설 5에서 정치 지식이 낮은 집단은 뉴스 이용을 많이 할수록 정확히 자기설정을 한다(자기설정 오차가 줄어든다)고 가정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먼저 각각의 평균을 기준으로 정치 지식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뉴스 이용을 많이 하는 집단과 적게 하는 집단으로 나누었다. 종속변인은 자기설정 오차로 실제 정치 지식 수준과 인식된 정치 지식 수준 간의 차이(절대값)로 설정되었다. 이 수치가 작을수록 응답자가 정치 지식에 대한 자기설정을 정확히 하였다고 설명할 수 있다. 추가로 성별, 나이, 교육수준, 소득수준, 정치성향을 공변량으로 통제하였다. 이렇게 모형화한 뒤 정치 지식과 뉴스 이용이 자기설정 오차에 미치는 효과를 공변량분석(ANCOVA)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자기설정 오차에 대한 정치 지식의 주효과($F = 46.543, p < .001$)와 정치 지식과 뉴스 이용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 = 4.146, p = .042$)(<Table 7>, <Figure 2> 참조). 그러나 자기 설정 오차에 대한 뉴스 이용의 주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F = .002, p = .968$).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므로 정치 지식 집단 별로 단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³⁾ 그 결과, 정치 지식이 낮은 집단에서는 뉴스 이용을 많이 할수록 자기설정 오차가 커졌으나 그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F = 2.480, p = .116$). 정치 지식이 높은 집단도 뉴스 이용을 많이 할수록 자기 설정 오차가 줄어들었으나 그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F = 1.652, p = .200$). 따라서 연구가설 5는 기각되었다.

Table 7. Effects of political knowledge and news use on self-placement error

		SS	df	MS	F	p
Control variables	Gender	211.048	1	211.048	.544	.461
	Age	112.091	1	112.091	.289	.591
	Education	16.948	1	16.948	.044	.835
	Income	2683.25	1	2683.25	6.915	.009**
	Political orientation	425.736	1	425.736	1.097	.295
Political knowledge		18059.1	1	18059.1	46.543	<.001***
news use		.638	1	.638	.002	.968
Political knowledge X news use		1608.6	1	1608.6	4.146	.042*

* $p < .05$. ** $p < .01$. *** $p < .001$.

3) 단순효과 분석을 위해 정치 지식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분리해 각각에 대해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성별, 나이, 교육수준, 소득수준, 정치성향이 통제변인으로 설정됐고, 뉴스 이용이 별도 독립변인으로 설정됐다. 종속변인은 앞서 분석 그대로 자기설정 오차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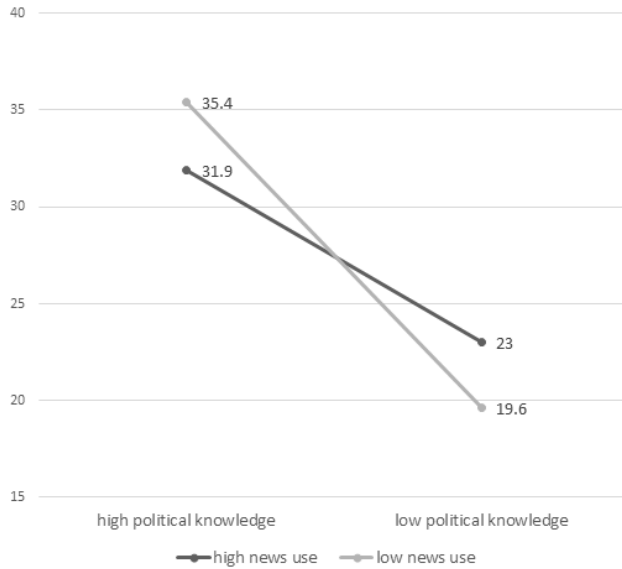


Figure 2. Effect of news use on self-placement error for two groups of political knowledge.

4) 정치 대화

본 연구는 정치 대화가 자기설정 오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앞서 연구가설을 제시하였다. 연구가설 6에서는 정치 지식이 높은 집단이 정치 대화를 많이 할수록 정확히 자기설정을 하는 (자기설정 오차가 줄어드는) 현상을 가정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진은 평균을 기준으로 정치 지식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정치 대화를 많이 하는 집단과 적게 하는 집단으로 나누었다. 종속변인은 자기설정 오차로 설정되었고, 성별, 나이, 교육수준, 소득수준, 정치성향은 공변량으로 통제되었다. 이렇게 모형화한 뒤 정치 지식과 정치 대화가 자기설정 오차에 미치는 효과를 공변량분석(ANCOVA)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자기설정 오차에 대한 정치 지식의 주효과($F = 50.924, p < .001$)와 정치 지식과 정치 대화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 = 7.438, p = .007$)(<Table 10>, <Figure 3> 참조).

상호작용 효과의 방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정치 지식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을 나누어 개별적으로 단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치 지식이 낮은 집단은 정치 대화를 많이 할수록 자기설정 오차가 커졌으나 그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F = 1.108, p = .293$). 반면, 정치 지식이 높은 집단은 정치 대화를 많이 할수록 자기설정 오차가 적어지며 그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F = 4.933, p = .027$). 이 집단에서 정치 대화를 많이 한 경우

(자기설정 오차 평균 = 37.8)가 적게 한 경우(자기설정 오차 평균 = 31.0)에 비해 자기설정 오차를 6.8만큼 낮췄다. 따라서 연구가설 6은 지지되었다.

Table 8. Effect of Political Knowledge and Political Discussion on Self-placement Error

	SS	df	MS	F	p	
Gender	238.3	1	238.3	.618	.432	
Age	254.6	1	254.6	.661	.417	
Control variables	Education	74.1	1	74.1	.192	.661
	Income	2467.7	1	2467.7	6.404	.012*
	Political orientation	419.9	1	419.9	1.09	.297
Political knowledge	19624.2	1	19624.2	50.924	<.001***	
Political discussion	543.3	1	543.3	1.41	.236	
Political knowledge X Political discussion	2866.3	1	2866.3	7.438	.007**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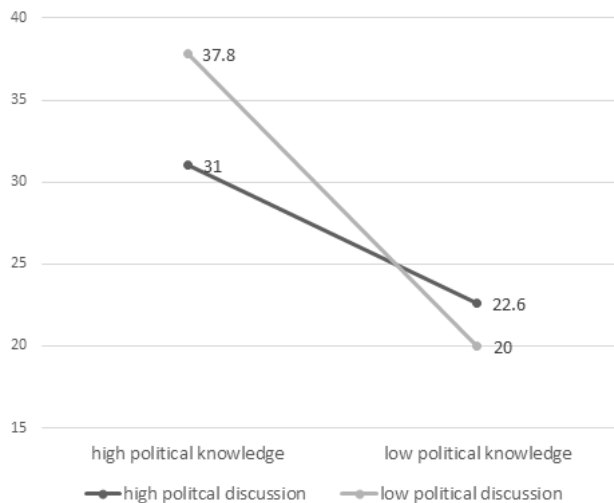


Figure 3. Effect of political discussion on self-placement error for two groups of political knowledge.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과신 현상과 관련된 대표적 사회심리학 이론인 더닝-크루거 효과를 정치 지식의 영역

에 적용해, 개인의 실제 정치 지식 수준에 따라 인지된 정치 지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나아가 실제 정치 지식과 인지된 정치 지식의 수준에 따라 개인들이 어떠한 정치 참여 양상을 보이는지 관찰하였다. 끝으로, 실제 정치 지식과 인지된 정치 지식의 간극을 뉴스 이용과 정치 대화라는 커뮤니케이션 변인들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지 탐구하였다.

그 결과, 정치 지식이 낮은 1사분위 집단은 자신의 정치 지식을 평균 이상까지는 아니지만, 실제 정치 지식보다는 다소 높게 평가하였다. 반면, 정치 지식이 높은 4사분위는 자신의 정치 지식을 실제 정치 지식보다 낮게 평가하였다. 그리고 실제 정치 지식과 그에 대한 메타 인지 능력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 결과는 정치 지식이 높은 집단은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히 분별하는 반면, 정치 지식이 낮은 집단은 자신이 정치에 대해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응답자 전체의 인지된 정치 지식 수준은 평균 45.7로 백분위 50을 넘지 못했다. 과대평가(overestimation)는 뚜렷하게 나타났지만, 과대설정(overplacement)으로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로써 더닝-크루거 효과가 정치 지식의 영역에서도 재현됨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정치 지식이 정치 참여에 영향을 미치며, 인지된 정치 지식이 그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관습적 정치 참여는 실제 정치 지식이 높을수록 활발하게 나타났으며, 이런 경향은 스스로 정치 지식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증폭되었다. 반면, 비관습적 정치 참여와 슬랙티비즘은 실제 정치 지식이 낮은 집단에서 주로 나타났으며, 이들 역시 스스로 정치 지식을 과대설정할수록 정치참여가 더욱 활발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치 참여의 양상을 정치 지식과 연관지어 이해해야 함을 시사한다. 관습적 정치 참여가 정치 지식이 높은 집단에서 나타나는 이유는 투표, 유세장 참여, 기부 등 전통적 정치 행위가 그만큼 다양한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상기해 봐야 한다. 반면, 온라인 게시글 읽기와 같은 슬랙티비즘은 높은 수준의 정치 지식이 없어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행위임을 이해해야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실제 정치 지식이 정치 참여를 유발하는 강도가 인지된 정치 지식에 의해 강화된다는 점을 새롭게 밝혔다. 자신의 정치 지식에 대한 과신이 우선적으로 정치적 효능감을 강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보다 부풀어진 정치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이 정치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과잉 자신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효능감의 강화가 정치 참여로 이어진다는 것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졌다(안형기·신범순, 2006).

본 연구는 정치 집단의 자기설정 오차(실제 정치 지식과 인지된 정치 지식 간의 차이)를 개선하는 데에 뉴스 이용이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특히 정치 지식이 낮은 집단에서 뉴스를 통한 지식 수준의 향상이 메타 인지 능력의 상승으로 이어져 자기설정 오차를 줄일 것으로 가정하

였다. 그러나 이 집단에서 뉴스 이용이 자기설정 오차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다.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지만, 뉴스 이용이 많은 경우에 오히려 자기설정 오차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뉴스 이용의 방식과 동기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안스파치, 제닝스, 그리고 아르세노(Anspach, Jennings, & Arceneaux, 2019)는 페이스북의 뉴스피드를 중심으로 단편적이고 잦은 뉴스 이용이 지식에 대한 과신(overconfidence)을 불러온다고 하였다. 뉴스 기사를 끝까지 깊이있게 읽지 않고 제목과 리드 중심으로 빨리 읽어치우는 방식은 지식 수준의 향상보다 자기 지식에 대한 과대평가의 부정적 영향을 낳는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뉴스 이용자는 절대적 뉴스 이용량이 많더라도 자기설정 오차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결과를 보일 수 있다.

또한 뉴스 이용의 동기가 자기 지식에 대한 과신을 불러오기도 한다. 쿤다(Kunda, 1990)의 동기기반추론(motivated reasoning)에 따르면, 인간은 특정한 동기에 따라 이성적 추론을 한다. 동기에는 정확(accuracy) 추구와 특정 결론(particular conclusion) 추구의 2가지 유형이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다양하고 상반된 증거를 균형있고 체계적으로 고려해 사전에 정해지지 않은 정확한 결론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원하는 결론을 얻기 위해 결론을 지지하는 증거만 선택해 편향된 추론 과정을 보인다. 많은 정치 뉴스는 진보와 보수의 진영의 갈등과 대립의 관점을 많이 담는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편향된 뉴스 선택과 정보처리를 보일 수 있다. 이는 뉴스 이용이 부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비현실적 믿음을 제공하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감안하면, 정치 지식이 낮은 집단에서의 뉴스 이용은 정확한 지식의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편향된 지식으로 이어져 비현실적인 과신을 증폭시켰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뉴스 이용이 자기설정 오차의 개선은 커녕 악화를 가져온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뉴스 이용이 정보 공중(informed public)을 증가시키는 한편 부정확한 정보 공중(misinformed public)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치 지식이 낮은 집단에게 정확하고 합리적인 뉴스 이용이 요구된다.

정치 대화도 자기설정 오차를 개선하는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 정치 지식이 높은 집단에서 정치 대화는 지식에서의 자기설정 오차를 줄이는 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일상적 대화에서 정치 토론까지 정치 대화가 정치 지식을 질적 양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연구는 많다(Eveland, 2004; Eveland et al., 2011; Wyatt et al., 2000). 본 연구 결과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치 대화가 자신의 지식 수준을 타인과 비교하며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성찰의 기능도 수행함을 의미한다. 김과 김(Kim & Kim, 2008)에 따르면, 일상적 정치 대화(everyday political talk)는 타인의 관심사와 목적을 서로 이해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공동선에 대한 추구를 가능하게 한다. 정치 대화가 제도화된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에서는 타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서로 다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며 상이한 입장을 상호 이해하는 과정이 수반된다(Andersen & Hansen, 2007). 일상적이든 제도적이든, 정치 대화는 타인들과 차이점 및 공통점을 공유하게 해 상호 이해를 넓혀준다.

대화의 의미와 기능은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미드(George Herbert Mead)의 상징적 상호작용주의(symbolic interactionism)의 관점에서 더 깊이있게 논의될 수 있다(박기순, 1987). 여기에서 대화는 언어라는 상징을 사용해 사회의 다른 구성원과 상호작용하며 의미를 발생시키는 과정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개인은 상징을 해석하며 자신에 대한 내적 성찰을 하게 되며, 타인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도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주체의 관점에서 형성된 ‘주체적 나(I)’와 타인의 관점에서 구성된 ‘객체적 나(Me)’가 정립되며 교차한다. 정치 대화에 참여한 개인들은 타인과의 상호 이해를 넓히며 자신 이외 타인들의 정치 지식 수준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이들은 타인의 관점에서 자신의 지식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대화의 긍정적 효과에 의해 정치 지식 높은 집단은 정치 지식 관련 자기설정 오차를 줄일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정치 대화의 이와 같은 효과가 정치 지식이 낮은 집단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브랜드(Eveland, 2004)는 정치 대화에서 공유되는 정보가 참여자들의 정치 지식 수준에 따라 옳은 정보와 틀린 정보로 혼재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메타 인지 능력이 부족한 정치 지식이 낮은 집단에서는 틀린 정보가 유통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 경우에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정치 지식 수준도 가늠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정치 지식이 낮은 집단에게 정치 대화는 자기설정 오차의 개선책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크루거와 터닝(1999)의 실험에서도, 시험 저득점 집단에게는 다른 참여자의 시험 결과를 보여주어도 자신에 대한 과대 설정이 개선되지 않았다. 메타 인지 능력이 부족하여 자신의 능력은 물론 타인의 능력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뒤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치 지식은 본 연구 결과 전체에서 다양한 정치 변수와 관련을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지식의 고저 집단에 따라 정치 참여의 양상이 달라지며, 뉴스 이용이나 정치 대화의 필요성도 다른 방식으로 요청된다.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는 오래 전부터 ‘지식 격차(knowledge gap, Tichenor, Donohue, & Olien, 1970)’ 문제가 논의되어 왔다.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SES, SocioEconomic Status)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더 빨리 학습해 지식 격차를 벌리는 현상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간과된 것이 인지된 정치 지식이다. 인지된 정치 지식의 격차는 실제 정치 격차보다 완화되어 나타나면서도 지식과 관련된 다양한 정치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실제 정치 지식과 인지된 정치 지식 사이에 나타나는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 또는 평가절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정치 커뮤니케이션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더욱 확장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이론적-실무적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본 연구는 더닝-크루거 효과와 그 관련 논의를 연구 설계 안에 충분히 녹여내고 실증적으로 관찰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특히 국내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정치적 과신과 관련해 이와 같은 이론적 적용은 거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정치 지식을 실제 정치 지식과 인지된 정치 지식을 나눠 개념적 구별을 하고, 그 차이와 관계를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동안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구들은 정치 지식을 인지된 정치 지식과 실제 정치 지식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류재성(2010)이 정치 지식을 주관적 응답으로 측정하는 관행에 대해 연구자 편의적인 방식이며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의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을 뿐이다. 본 연구는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이론적 근거를 동원해 2가지 정치 지식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나아가 실제 정치 지식과 정치 참여 간의 관계가 인지된 정치 지식을 통해 조절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본 연구는 정치 지식에 대한 과신을 개선하기 위해 정치 대화와 뉴스 이용을 제안하고, 이 요인들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앤슨(2018)을 포함한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정당 일체감 등에 의한 정치 지식 과신의 증폭 현상만 살펴보았을 뿐, 개선 방안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 연구 결과는 시민들에게 실제 정치 지식의 향상과 정확한 자기 수준의 인식을 돕는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정치 지식이 높은 집단은 정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정치 지식의 상대적 위치를 정확히 판단하게 도울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치 지식이 높은 집단이 자신의 정치 지식을 높이 평가할수록 관습적 정치 참여에 활발하다는 결과도 관찰하였다. 그렇다면 정치 지식이 높은 집단의 적극적 투표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정치 대화를 장려가 필요하다는 실무적 방안을 도출할 수도 있다.

본 연구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정치 지식 측정 문항의 난이도가 응답자들에게 지나치게 쉬웠던 것으로 보인다. 정치 지식 측정 문항의 응답자들 평균 점수는 10점 만점에 6.91, 표준편차는 2.19였다. 응답자들의 득점 분포가 상향평준화된 분포를 보였다. 진술하였듯 주어진 과제의 난이도가 너무 쉬우면 응답자들의 상대적인 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응답자들은 허위 합의 효과에 따라 자신의 지식 수준을 실제보다 낮게 설정하게 된다(Ortoleva & Snowberg, 2015). 본 연구에서도 응답자들이 자신의 정치 지식을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하여 과대절정(평균 이상 효과)이 나타나지 않았고, 나아가 정치 지식이 낮은 집단이 자신의 정치 지

식을 극적으로 과대평가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난이도와 변별력이 검증된 척도를 활용하고 사전 검사를 실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둘째, 측정과 분석에서 정교한 처리가 부족했음을 밝힌다. 예를 들어, 자기설정 오차는 실제 정치 지식과 인지된 정치 지식의 차이에 절대값을 취해 구성했다. 그 결과 뉴스 이용과 정치 대화가 정치 지식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오차를 줄이는 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자기설정 오차는 과대설정이나 과소설정의 방향을 알 수 없도록 설정됐다.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설정 오차의 방향성을 주요 변인으로 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본 연구는 분석에서 정치 지식의 원점수를 사용하지 않고 사분위 집단 또는 상하 집단을 사용했다. 사분위 집단에 따른 차이 분석은 더닝-크루거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다. 본 연구도 더닝-크루거 효과를 핵심으로 하고 있어 모든 분석에서 이 전통을 유지하고자 했다. 그러나 원점수를 집단 변수로 바꿀 때 발생하는 정보 손실은 본 연구의 한계임이 분명하다.

셋째, 본 연구는 정치 참여를 분석하면서 뉴스 이용과 정치 관심도 등의 관련 변수를 통제하지 않았다. 연구의 핵심을 두가지 유형의 정치 지식(실제 정치 지식과 인지된 정치 지식)에 둔 나머지 정치 커뮤니케이션 관련 추가 변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정치 지식에서 다양한 변수를 거쳐 정치 참여에 이르는 포괄적 연구 모형이 제시되어야 하겠다.

References

- Ahn, H. K., & Shin, B. S. (2006). Netizens' political efficacy and voting behavior: A Case study of the 16th Presidential Election in Korea. *Korean Policy Sciences Review*, 10(1), 27-49.
- Andersen, V. N., & Hansen, K. M. (2007). How deliberation makes better citizens: The Danish deliberative poll on the Euro.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46(4), 531-556.
- Anson, I. G. (2018). Partisanship, political knowledge, and the Dunning-Kruger Effect. *Political Psychology*, 39(5), 1173-1192. doi:10.1111/pops.12490
- Anspach, N. M., Jennings, J. T., & Arceneaux, K. (2019). A little bit of knowledge: Facebook's News Feed and self-perceptions of knowledge [On-Line]. *Research & Politics*, 6(1), 1-9. Retrieved from <https://journals.sagepub.com/doi/pdf/10.1177/2053168018816189>
- Ariely, D., Loewenstein, G., & Prelec, D. (2003). "Coherent Arbitrariness": Stable Demand Curves Without Stable Preference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8(1), 73-106. doi:10.1162/00335530360535153
- Brady, H. E. (1999). Political participation. In J. P. Robinson, P. R. Shaver, & L. S. Wrightsman (Eds.), *Measures of political attitudes* (pp. 737-801). New York, NY: Academic Press.
- Brown, A. L. (1978). Knowing when, where, and how to remember: A problem of metacognition. In R. Glaser (Ed.), *Advanced in instructional psychology, Vol. 1* (pp. 77-165). Hillsdale, NJ: Erlbaum.
- Carpini, M. X. D., & Keeter, S. (1993). Measuring political knowledge: Putting first things firs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7(4), 1179-1206. doi:10.2307/2111549
- Carpini, M. X. D., & Keeter, S. (1996). *What Americans know about politics and why it matter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Chaffee, S. H., Zhao, X., & Leshner, G. (1994). Political Knowledge and the Campaign Media of 1992. *Communication Research*, 21(3), 305-324. doi:10.1177/009365094021003004
- Christensen, H. S. (2011). Political activities on the Internet: Slacktivism or political participation by other means? [On-Line]. *First Monday*, 16(2). Retrieved from <https://doi.org/10.5210/fm.v16i2.3336>
- Cowen, T. (2005). Self-deception as the root of political failure. *Public Choice*, 124(3-4), 437-451. doi:10.1007/s11127-005-2058-y
- Cross, K. P. (1977). Not can, but will college teaching be improved? *New Directions for Higher Education*, 17, 1-15. doi:10.1002/he.36919771703

- de Vreese, C. H. (2007). Digital Renaissance: Young Consumer and Citizen?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11(1), 207-216. doi:10.1177/0002716206298521
- Druckman, J. N. (2005). Does Political information matter? *Political Communication*, 22(4), 515-519. doi:10.1080/10584600500311444
- Dunning, D., Johnson, K., Ehrlinger, J., & Kruger, J. (2003). Why people fail to recognize their own incompetence.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2(3), 83-87. doi:10.1111/1467-8721.01235
- Eccles, J. S. (1987). Gender roles and women's achievement-related decision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1(2), 135-172. doi:10.1111/j.1471-6402.1987.tb00781.x
- Ehrlinger, J., & Dunning, D. (2003). How chronic self-views influence (and potentially mislead) estimates of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1), 5-17. doi:10.1037/0022-3514.84.1.5
- Ehrlinger, J., Johnson, K., Banner, M., Dunning, D., & Kruger, J. (2008). Why the unskilled are unaware: Further explorations of (absent) self-insight among the incompetent.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105(1), 98-121. doi:10.1016/j.obhdp.2007.05.002
- Eveland, W. P. (2001). The cognitive mediation model of learning from the news. *Communication Research*, 28(5), 571-601. doi:10.1177/009365001028005001
- Eveland, W. P. (2004). The effect of political discussion in producing informed citizens: The roles of information, motivation, and elaboration. *Political Communication*, 21(2), 177-193. doi:10.1080/10584600490443877
- Eveland, W. P., & Scheufele, D. A. (2000). Connecting news media use with gaps in knowledge and participation. *Political Communication*, 17(3), 215-237. doi:10.1080/105846000414250
- Eveland, W. P., Hayes, A. F., Shah, D. V., & Kwak, N. (2005).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and political knowledge: A model comparison approach using panel data. *Political Communication*, 22(4), 423-446. doi:10.1080/10584600500311345
- Eveland, W. P., Morey, A. C., & Hutchens, M. J. (2011). Beyond deliberation: New directions for the study of informal political conversation from a communication perspective. *Journal of Communication*, 61(6), 1082-1103. doi:10.1111/j.1460-2466.2011.01598.x
- Felson, R. B. (1981). Ambiguity and bias in the self-concept.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4(1), 64-69. doi:10.2307/3033866

-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2), 117-140.
doi:10.1177/001872675400700202
- Flavell, J. H. (1979). Metacognition and cognitive monitoring. *American Psychologist*, 34, 906-911.
- Glenn, C. L. (2015). Activism or “Slacktivism?”: Digital media and organizing for social change. *Communication Teacher*, 29(2), 81-85. doi:10.1080/17404622.2014.1003310
- Groshek, J., & Dimitrova, D. (2011). A cross-section of voter learning, campaign interest and intention to vote in the 2008 American election: Did Web 2.0 matter. *Communication Studies Journal*, 9(1), 355-375.
- Jang, S., & Ryu, S. (2017). The influence of political efficacy, political knowledge and political cynicism on political participation: Focus on college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Political Communication*, 47, 137-162.
- Jung, N., Kim, Y., & de Zúñiga, H. G. (2011). The mediating role of knowledge and efficacy in the effects of communication on political participation.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14(4), 407-430.
doi:10.1080/15205436.2010.496135
- Kann, M. E., Berry, J., Grant, C., & Zager, P. (2007). The Internet and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On-Line]. *First Monday*, 12(8). Retrieved from <https://firstmonday.org/article/view/1977/1852>
- Katz, E., & Lazarsfeld, P. F. (1955). *Personal influence: The part played by people in the flow of mass communications*. Glencoe, IL: Free Press.
- Kenski, K., & Stroud, N. J. (2006). Connections between internet use and political efficacy, knowledge, and participation.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50(2), 173-192.
- Keum, H., & Cho, J. (2015). The influences of news use and political discussion on political knowledge, efficacy, and participation: The relative effects of media and communication channel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9(3), 452-481.
- Khazan, O. (2013, April 30). *UNICEF tells slacktivists: Give money, not Facebook likes*. The Atlantic. Retrieved from <https://www.theatlantic.com/international/archive/2013/04/unicef-tells-slacktivism-give-money-not-facebook-likes/275429/>
- Kim, J., & Kim, E. J. (2008). Theorizing dialogic deliberation: Everyday political talk as communicative action and dialogue. *Communication Theory*, 18(1), 51-70.
- Kim, M. G., Shin, I. Y., Kwon, M., & Kim, J. (2011, January). *Confirming the causality among news media use, political discussion, and political knowledg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HCI Society

of Korea, Pyeongchang, Korea.

Ko, R. J. (2006). *Self over-evaluation on the academic achievement: the role of better-than-average effect*.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Kruger, J., & Dunning, D. (1999). Unskilled and unaware of it: How difficulties in recognizing one's own incompetence lead to inflated self-assess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6), 1121-1134. doi:10.1037/0022-3514.77.6.1121

Kunda, Z. (1990). The case for motivated reasoning. *Psychological Bulletin*, 108(3), 480-498.

Lassen, D. D., & Serritzlew, S. (2011). Jurisdiction Size and Local Democracy: Evidence on Internal Political Efficacy from Large-scale Municipal Reform.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5(2), 238-258. doi:10.1017/S000305541100013X

Lee, H. S. (2003). Analyzing the influences of mass media and the Internet uses on voters' interest in the 16th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and candidates recognition.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17(4), 7-36.

Lee, J. T. (2014). Condition and mechanism of cultural differences in the better-than-average effect.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8(3), 127-143.

Lee, J. W., Yates, F. J., Sninotsuka, H., Singh, R., Onglatcc, M. L. U., Yen, N., Gupta, M., & Bhatnagar, D. (1995). Cross national difference in overconfidence. *Asian Journal of Psychology*, 1(2), 63-69.

Lenart, S. (1994). *Shaping political attitudes: The impact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nd mass media*. Thousand Oaks, CA: Sage.

Lodge, M., & Hamill, R. (1986). A partisan schema for political information process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0(2), 505-519. doi:10.2307/1958271

Luskin, R. C. (1990). Explaining political sophistication. *Political Behavior*, 12(4), 331-361. doi:10.1007/BF00992793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253. doi:10.1037/0033-295X.98.2.224

Morozov, E. (2012). *The net delusion: The dark side of internet freedom*. Washington, D.C.: Public Affairs.

Neuman, W. R. (1986). *The paradox of mass politics: Knowledge and opinion in the American electorat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Ortoleva, P., & Snowberg, E. (2015). Overconfidence in political behavior. *American Economic Review*, 105(2), 504-535.

- Park, K. S. (1987). A model establishment of symbolic interaction theory: Focused on dyadic communication. *Korean Journal of Sociology*, 21, 45-54.
- Prior, M. (2009). Improving media effects research through better measurement of news exposure. *The Journal of Politics*, 71(3), 893-908. doi:10.1017/S0022381609090781
- Russell, B. (1998). The triumph of stupidity. In H. Ruja (Ed.), *Mortals and Others, Volume II: American Essays 1931-1935* (pp. 27-28). Oxon, UK: Routledge.
- Ryu, J. (2010). Research note on Korean voters' political knowledge. *Journal of Korean Politics*, 19(1), 45-70.
- Shah, D. V., Cho, J., Eveland, W. P., & Kwak, N. (2005). Information and expression in a digital age. *Communication Research*, 32(5), 531-565. doi:10.1177/0093650205279209
- Shulman, S. W. (2014). The internet still might (but probably won't) change everything. *I/S: A Journal of Law and Policy*, 1(1), 111-145.
- Sinkavich, F. J. (1995). Performance and metamemory: Do students know what they don't know? *Journal of Instructional Psychology*, 22(1), 77-87.
- Solhaug, T. (2006). Knowledge and self-efficacy as predictors of political participation and civic attitudes: with relevance for educational practice. *Policy Futures in Education*, 4(3), 265-278.
- Tichenor, P. J., Donohue, G. A., & Olien, C. N. (1970). Mass media flow and differential growth in knowledge. *Public Opinion Quarterly*, 34(2), 159-170.
- Tversky, A., & Kahneman, D. (1974). Judgment under uncertainty: Heuristics and biases. *Science*, 185(4157), 1124-1131. doi:10.1126/science.185.4157.1124
- Van der Meer, T., & van Ingen, E. (2009). Schools of democracy? Disentangl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c participation and political action in 17 European countrie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48(2), 281-308.
- van Deth, J. W. (2014). A conceptual map of political participation. *Acta Politica*, 49(3), 349-367. doi:10.1057/ap.2014.6
- Verba, S., & Nie, N. H. (1987). *Participation in America: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agner, J. (1983). Media do make a difference: The differential impact of mass media in the 1976 Presidential Ra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7(3), 407-430. doi:10.2307/2110978
- Wanta, W., & Hu, Y.-W. (1994). The effects of credibility, reliance, and exposure on media agenda-setting:

- A path analysis model. *Journalism Quarterly*, 71(1), 90-98. doi:10.1177/107769909407100109
- Weaver, D., & Drew, D. (1995). Voter learning in the 1992 presidential election: Did the “nontraditional” media and debates matter?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2(1), 7-17. doi:10.1177/107769909507200102
- Weinstein, N. D. (1987). Unrealistic optimism about susceptibility to health problems: Conclusions from a community-wide sample.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10(5), 481-500. doi:10.1007/BF00846146
- Wyatt, R. O., Katz, E., & Kim, J. (2000). Bridging the spheres: Political and personal conversation in public and private spaces. *Journal of Communication*, 50(1), 71-92. doi:10.1111/j.1460-2466.2000.tb02834.x
- Yang, J., & Lee, H. (2013). Communication effects gap among news consumers with different cross-platform uses: Focused on political knowledge, efficacy, and conversation.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27(5), 162-203.

최초 투고일 2020년 4월 10일
게재 확정일 2020년 7월 27일
논문 수정일 2020년 8월 4일

부록

- 고여진 (2006). <학업 성취 영역에서의 자기 과대평가 연구: 평균-이상 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금희조·조재호 (2015). 미디어를 통한 뉴스 이용과 대화가 정치 지식, 효능감, 참여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의 종류와 대화 채널의 차별적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9권 3호, 452-481.
- 김민규·신인영·권미홍·김주환 (2011, 1월). <뉴스 미디어 이용, 정치 대화, 그리고 정치 지식 간의 인과관계 검증>.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평창.
- 류재성 (2010). 한국 유권자의 정치 지식에 관한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정치연구>, 19권 1호, 45-70.
- 박기순 (1987).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의 모형 정립: 2인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21호, 45-54
- 안형기·신범순 (2006). 정치참여 결정 요인으로서의 인지적 효능감: 네티즌의 투표행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권 1호, 27-49.
- 양정애·이현우 (2013). 크로스플랫폼 뉴스소비 유형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효과 격차: 정치지식, 정치효능감, 정치대화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7권 5호, 162-203.
- 이종택 (2014). 평균 이상 효과에서 문화차의 발생 조건과 설명 기제. <한국심리학회지>, 28권 3호, 127-143.
- 이효성 (2003). 대중매체와 인터넷 이용이 16대 대선관심과 후보인지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한국방송학보>, 17권 4호, 7-36.
- 장석준·유승관 (2017). 대학생들의 정치효능감, 정치지식, 정치냉소주의가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47호, 137-162.

정치적 무지에 대한 무지 실제 지식과 인지된 지식이 정치 참여에 미치는 효과 분석

김현우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석사)

이종혁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정치 지식이 낮은 집단이 자신의 지식 수준을 과대평가하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본 연구는 메타 인지 능력과 더닝-크루거 효과(Dunning-Kruger effect)를 이론적 근거로 이 문제를 풀어보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정치 지식, 인지된 정치 지식, 정치 참여, 뉴스 이용, 정치 대화 등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정치 지식 수준이 낮은 집단은 자신의 지식 수준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는 반면, 정치 지식 수준이 높은 집단은 자신의 지식 수준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했다. 정치 지식 수준이 낮은 집단의 이와 같은 과신은 자신의 무지에 대한 무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정치 지식의 영역에서도 더닝-크루거 효과가 재현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치 지식이 높은 집단은 관습적 정치 참여를, 낮은 집단은 슬랙티비즘 유형이 정치 참여를 즐기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지된 정치 지식은 이런 영향 관계를 증폭시키는 조절변인으로 기능하였다. 또한 자신의 정치 지식 수준에 대한 오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치 대화가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뉴스 이용은 유의미한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그동안 정치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논의되어 온 정치 지식을 사회심리학적 관점으로 개념을 확장하고 풍부한 해석을 더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핵심어: 정치 지식, 더닝-크루거 효과, 정치 참여, 슬랙티비즘, 정치 대화